



# 濁流清論

제57호 2019년 6월 5일(수)

발행인: 김 상 배 / 편집: 편집위원회

## < 알려 드립니다 >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u>더불어 푸른 출발에서</u> 아주대학교를 떠나며	1
<u>특집</u> 대학의 정책을 교수들에게 소개한다 - 글로벌 IT전공 - 대학혁신지원사업 - 기초교양교육 개선	3
<u>교수들의 건강칼럼</u>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자요...오십견인가요?	11
<u>소식</u> - 교수회 신임교원 환영 간담회 - 교수회 제97,98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12

## 더불어 푸른 출발에서

# 아주대학교를 떠나며

의학과 신경과학교실 허균

그 동안 의사로서 40년, 대학교수로서 31년을 살아왔다. 처음 9년은 한국에서 4년, 미국에서 5년의 수련기간이었고, 연세대학교에서 6년, 아주대학교에서 25년을 보냈다. 신경과 의사로서는 불모지와 같았던 뇌전증(간질)분야를 전공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뇌전증 학회를 창립하였으며, 뇌전증 협회 회장을 10년 이상 수행하면서 ‘간질’이라는 병명을 ‘뇌전증’으로 개정하고, ‘뇌전증 장애인’ 등록의 법제화 추진 등 사회적 인식개선과 환우들의 권익증진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병원에서는 매일같이 밀려오는 신경계환자들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인간의 고난과 죽음의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

1994년 아주대학교 병원 창립멤버의 기회가 주어져서, 내 소신껏 임상교실을 정립하고, 새로운 진료시스템을 개발하며 우수한 후학들을 만나서 의료원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최고의 행운이었다. 2001년도에는 의료계 파업과 학내 분쟁사태로 어수선할 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되어 갈등조정 과정에서 몹시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며, 2010년까지 의료원 연구분야 보직을 수행해오면서, 그간 평교수로는 접촉하지 못했던 다양한 과제들, 즉 기관운영에서 재정의 중요성, 조직내의 갈등과 조화, 급변하는 사

회 속에서 대학의 역할과 한계,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이를 위한 자원의 필요성 등,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숙명적인 측면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각과 고민은 많았지만 이룬 것은 별로 없었던 좌절과 무력의 기간이었던 것 같다. 최근 10년은 평교수로 돌아와 그간 깊숙이 묻어두었던 질문들, 즉 인간의 본성과 욕망, 쾌락과 고통, 행복과 불행, 자유의지와 윤리, 의식과 물질, 죽음과 삶의 의미와 같은 주제들을 ‘뇌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서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정답도 없고 새로운 소출도 없는 의학과 뇌과학의 떠나면 변방으로 임상교수로서는 외도의 길이었는데, 일천한 강의들을 묵묵히 들어주었던 교실원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다.

과연 나는 좋은 의사였는가? 좋은 교수였는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 안락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세상들을 체험하며 일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No’인 것 같다. 까다로운 뇌질환의 거대한 장벽은 점점 더 거

대하게만 느껴졌고, 나의 호기심과 집중력은 오로지 인간의 무능함과 제한성만 자각하게끔 하였다. 환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에 나의 가슴은 너무도 작았고 쉽게 지쳐버렸다.

지난 40년간 내가 수행하여 온 일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고, 늙어가고, 병 들고, 잊혀지고, 죽는 것인가?’를 눈앞에서 바라보는 일이었다. 그 동안은 제 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일인칭의 시각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다. 위대한 천재들, 멘델스존은 38세, 파스칼은 39세, 비트겐슈타인은 62세, 스티브 잡스는 21세기에서도 56세에 생을 마감했다. 65년을 살고 아직도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이 신의 축복이고 우주의 신비인 것이 분명하다.



특집

## 대학의 정책을 교수들에게 소개한다

## 들어가기

박형주 총장의 부임 후 미네르바 사업, 우즈베키스탄에 아주대 분교 개설, 기초 교양 교육 개편, 글로벌 IT 사업, 교육 혁신 지원 사업 등 우리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일반 교수들의 무관심 또는 막연한 반대 속에 방치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에 저희 <탁류청론>은 사업이 연기된 미네르바 사업, 우즈베키스탄 분교 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소개하는 글을 이번 호에 게재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사업 담당자들과 편집위원들이 좌담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신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에 대해 교수님들의 의견을 저희 편집부로 보내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의 정책 - 글로벌 IT전공

## 글로벌 IT전공 소개

소프트웨어학과 김 민 구

## 1. 목표

글로벌 IT전공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는 외국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학문적인 이론 교육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능력인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자료구조, 알고리즘, 통신, 시스템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체제 등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집중교육 형태로 다수 수행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 인력을 배양하려고 한다.

## 2. 운영 방법

본 전공은 소프트웨어학과의 전공으로 신설되며, 외국인 대상(정원외)으로 한국어로 교육이 진행된다. 30명 규모의 반 단위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트랙으로 모집할 수 있다.

## 1) 2+1+1 시스템(4학년 편입)

외국(주로 중국)의 3년제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의 2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전공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1년 동안의 연수 교육을 마침으로 자국의 전문대학의 졸

업을 취득한 혹은 3년 과정 이수 인정 후(MOU/MOE 필요), 아주대학교 글로벌IT전공 4학년으로 편입하여 1년간 전공교육을 이수하여 졸업하게 된다. 연수기간 1년 동안의 과정은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최소 TOPIK 레벨 3 수준을 획득하여야 4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4학년 전공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전공예비연수(혹은 심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학년으로 편입한 후에는 집중교육 형태로 한 학기를 8주간씩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한 구간에 2개의 전공집중교육(4학점: 이론 2시간, 실습 4시간)을 이수한다. 따라서 4학년에는 8개의 전공집중교육 총 32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 전공집중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도메인 분석 및 설계 프로젝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IoT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기계학습 및 데이터마이닝 프로젝트,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웹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등.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어 능력이 TOPIK 레벨 4이상이어야 한다.

## 2) 외국인 신입학

외국 고등학교를 이수한 자로 한국어 능력이 최소 TOPIK 레벨 3이상인 자로 아주대학교 글로벌IT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 수학 능력 대한 평가는 서류와 면접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에 아주대학교 글로벌IT전공반을 지원

하여 1학기 이상 수학한 자는 서류 심사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졸업 요건으로는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TOPIK 레벨 4이상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1학년 - 3학년은 소프트웨어학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만 산업체에서 필요한 실전적인 과목을 추가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4학년은 2+1+1시스템과 같이 8개의 전공집중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졸업학점 총 128학점 이상).

## 3. 재정 및 향후 방안

현재 목표는 신입생 및 편입생을 매년 1개 반씩 증가시켜 최대 4개 반의 규모로 확대하면 총 720명 규모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고등학교에 아주대학교 글로벌IT전공 진학반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중국 대학에는 글로벌IT전공 특별반 혹은 중외합작과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규모에 이르는 시점에서 재정적 측면을 바라보면, 매년 약 15~20억 원 이상 규모의 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강의중점교수(상당수는 중국인 박사 졸업생 활용) 확보 및 명예교수의 활용을 통해 기존 전공교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수익의 일부를 대학원생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또한 소요되는 공간은 약 800평 규모로 예상되며,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인력양성, 소프트웨어 대학원의 활

성화 및 아주대학교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한다.

대학의 정책 - 대학혁신지원사업

## 대학 구성원의 발전을 위한 지렛대로서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교육혁신원장 강 경 란

일반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자율역량),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등의 교육 혁신을 위한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한 사업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에 부합하는 자율혁신과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2018년에 실시한 대학기본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I·II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아주대학교는 평가 결과 상위 60%에 해당하여 자율협약형인 I 유형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기획하면 된다. 전국적으로 131개 대학, 수도권에서는 53개 대학이 자율협약형으로 선정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영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며, 중장기 발전 계획 중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선별하였으며, 네 가지 분야 모두에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과 학생,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영역에서는 그동안의 양적 확대에서 발전하여 해당 분야에 영향력 있는, 그래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참고하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산학협력 영역은 LINC+ 사업에서 다루는 산학협력 교육 및 기업 지원 등의 사업과의 중복을 배제하고 다음 단계의 산학협력 모델로 간주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기타 영역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서의 학내 문화 혁신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배치하였다. 각 영역별로 제안된 대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

“Hi-interactive 자기주도형 교육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일시에 큰 변화를 유도하는 “혁신”보다는 점진적으로 교수와 학생들에게 스며들어서 체화되어 결과적으로

“변화”하도록 프로그램들이 설계되었다.

- 각 전공의 교육과정을 목표지향적으로 재점검하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해당 전공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체계 혹은 역량을 배양하기에 필요한 주제들이 충분히 체계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점검하고 교육 성과에 따라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지식 체계 혹은 역량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 국내에서 대학 교육 혁신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아주대형의 역량 기반 고강도 상호작용 중심 교육을 실현할 것이다. “미네르바 스쿨”하면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토론하고 이를 평가하는 교수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교육 모델의 가장 핵심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의 교육 내용 및 평가 체계 또한 밀도 있게 설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사전 학습을 기반으로 수업 시간 중에는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토론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과 평가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강의페어링’, ‘파란학기’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융복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강의페어링’은 교양과 전공, 혹은 서로 다른 전공의 과목들을 수강한 학생이 두 과목의 주제를 융합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는 활동이다. 파란학기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실천할

수 없는 도전활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활동으로 대부분의 활동들이 서로 다른 전공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협력하고 있다. 기존의 활동에 비해 본 사업을 통해 융복합 대상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파란학기 Extreme처럼 지역사회 혁신이나 국내외 소외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수준까지의 활동을 지원하려고 한다.

- 학생들의 자율적인 예복습을 지원하기 위해 “Open Source Education” 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동영상 길이 15~20분 규모의 주제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들을 확보하고 이를 게시하여 학생과 교수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선, 학생 개개인이 콘텐츠를 선별하여 자신만의 학습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는 복습의 기회를, 앞서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예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추가로 학생 개개인의 자신만의 과목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다. 교수자들은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수업에서 중복된 강의 없이 학생들의 학습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의 예비 사례로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아주Bb 반추학습 사이트를 들 수 있다. 서로 다른 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주제들을 상호 참조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결 지성”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 많은 전공 교수들이 학생들의 부족한 역량으로

제시하는 것이 의사소통능력, 특히, 글쓰기와 말하기 역량이다. 교과목과 연계하여 글쓰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AWAC와 학생 개인의 의사소통역량 평가인 ACAT의 수혜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ACAT는 Ajou Communication Ability Test로서 아주대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한 글쓰기, 말하기 역량 평가 프로그램으로, 평가 후에 역량이 미흡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교육까지 제공된다. AWAC는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보고서의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미 비문인 것들은 사전 수정되어서 보고서가 제출되므로 교과목 담당 교수는 교과목의 핵심 주제에 집중해서 평가하고 지도할 수 있다.

- 타 대학에 비해 교내 외국인 학생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교내 강의 적응에 어려움을 크다는 문제의식이 많다.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공동으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내국인 학생들의 영어 강의 수강을 돕고 외국인 학생들의 한글 강의 수강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특히 Speech To Text 기술을 도입하여, 강의 동영상에 자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내의 다양한 기구에서 여러 교육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비교과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 아주블루 마일리지라는 제도로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 개최 및 참여 결과에 대한 추적 서비스일 뿐 전체적으로 아주대학교 학생에게 기대되는 역량과의 관계가 점검되지 못하였고, 학생들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서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운영 및 학생 참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

-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해외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한인 과학자 대회 등 우수 인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교수 임용을 홍보하고 상시적으로 해외 우수 기관에 아주대학교의 우수 연구 실적을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핵심 인력인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위해 대학원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대학원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들일 것이다. 해외 우수 인력을 초청하여 공동 연구 등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활동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것이다.
- 연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 장

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여러 연구 집단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구들을 중심으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혁신지원사업의 비용을 투입할 것이다.

### 3) 산학협력

- 산학협력 분야는 기술 창업 지원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연구실에서 갖고 있는 우수 기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창업 과정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 외에도 교내 특허 중에 사업화 연계 가능성이 있는 특허들에 대해 대형 기술 이전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 4) 기타

- 기타 분야는 대학 내 문화 혁신, 행정시스템 개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민과의 상생 문화를 구축하고, 자율 주행 및 교통 분야에서의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기술 및 서비스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는 캠퍼스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ICT 행정 시스템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고, 대학 내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대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SDG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대학의 글로벌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며 보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도 그리 하듯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학 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으로 3년은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고 발전 방향을 좀 더 세밀하게 수립하고 나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체 교수진에게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단과 대학 학과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었는데, 본 <탁류청론> 원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별 교수들에게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사업이고, 학과가 학교가 개별 교수가 함께 발전해 가는 기회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소망한다.

## 2019년도 기초교양교육 개선 계획

다산학부대학장 손정훈

올해부터 시작된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우리 대학은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는 5개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중에서 다산학부대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인 ‘연결지성 기반 구축 및 문화확산’, ‘자기주도형 Hi-interactive 교육 혁신’ 부문에 연관된 계획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혁신지원사업계획 외에도 2018년 기초교양교육 TF 보고서 및 단과대학별 간담회와 설문에서 제시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주요 근거로 삼아 2019년도 기초교양교육 개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다산학부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기초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심화컨설팅의 추진이다. 다산학부대학은 2015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기본컨설팅을 통해 교양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는 보다 심화된 컨설팅을 통해 기초교양교과목의 교육과정, 이수체계, 교과목의 학술성과 적합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2018년 기초교양교육TF 활동에서 이미 심화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교육부에 제출된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서에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컨설팅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의뢰하여 시

행한다. 개별 교과목의 학술성과 기초교양교과목으로서 적합성을 평가할 것이며 교양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다. 그 결과에 따라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2019년 2학기에는 우선 10여 개 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개선과 개편 작업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대상과목을 늘려갈 것이다 또한 이 컨설팅과 개선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기초교양교과목의 학술성의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우리 대학 교양 교과목 신설과 개편의 잣대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학술성 높은 교양교과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초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육체계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 중등교육과정의 개편, 외국인 학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예견되는 신입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변화한 학문 및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초교육의 틀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시행하고자 한다. 이는 수학과 기초과학과목, 영어, 글쓰기 등 모든 기초과목과 아주인성, 아주희망 같은 소양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수학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2022학번들의

학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을 먼저 시작하였다. 2019년 초부터 수학과를 중심으로 수학기초교육과정 TF를 구성하여 먼저 초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이공계 학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수리교육과목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역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BSM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를 위한 틀을 짜는 방식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학기 초부터 다양한 학과와 직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 정통대, 공대, 자연대 학장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들로 정책연구팀을 꾸리기로 하였다. 현재 모든 위원의 추천이 완료되어 첫 번째 모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교육과정개편 시기 이전에 최종안을 도출하여 내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수학 기초 교육과정 개편의 논의와 BSM 교육과정 개편 논의는 현재는 따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조율을 하고자 한다.

글쓰기는 지난해부터 개편작업이 이미 시작되어서 새로 집필된 교재를 현재 강의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혁신지원사업의 틀 내에서 ‘전공 연계 글쓰기 프로그램(AWAC)’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반영하여 내년 이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관심 있는 학과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

영어 교과에 대한 논의는 학습부진자에 대한 학습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

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모듈형 학습 콘텐츠의 활용, 튜터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논의의 폭 역시 필요에 따라서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주인성과 아주희망에 대해서는 각각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역시 올해 하반기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초교양교육은 우리 대학의 모든 학과와 모든 학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 만큼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자요...오십견인가요?

의학과 재활의학교실 윤 승 현

저의 전공은 재활의학 중에서도 근골격계 재활이고, 오십견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아파 오신 환자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먼저 질문에 답을 드리면, 나이가 40~60대이고, 갑작스러운 외상도 없었는데 서서히 어깨통증이 심해지고, 바닥에 놓인 물건을 들기는 문제없지만 어깨를 크게 돌리거나 옷을 입고 벗는 동작의 끝에서 통증이 있다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깨가 아픈 이유는 다양합니다. 40~60대라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손상이 흔하게 생기고, 힘줄 주변에 석회화 생기는 석회건염도 흔합니다. 또 어깨 주위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근막통증후군도 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십견은 나이 50대에 잘 생긴다고 이름을 붙였고 의학적으로는 “동결견”이나 “유착관절낭염”으로 더 흔히 불립니다. 오십견은 왜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만 몇 가지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 나이는 (40대, 60대에서도 생기지만) 주로 50대, 덜 쓰는 어깨(오른손잡이라면 왼쪽 어깨), 어깨주변에 수술을 받은 경우, 예를 들면 팔뚝 골절로 기브스를 했거나, 경추(목뼈)의 디스크 수술, 유방암 수술을 받아 한동안 어깨를 못썼다면 잘 생깁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오십견이 잘 생기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오십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관절주머니의 염증”입니다. 팔뚝과 날개뼈 사이에 “관절주머니”가 있고, 이유는 모르지만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두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통증이고 또 하나는 어깨의 운동범위 제한입니다, 두가지 모두 불편하지만 환자를 병원으로 오게 하는 주요 이유는 통증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하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기 때문에 병원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오십견이 생기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염증이 원인인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염증”을 줄여주면 됩니다. 염증을 줄이면 통증이 줄고, 이제 남은 것은 운동범위 제한입니다. 운동범위 제한은 조금씩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 서서히 운동범위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오십견 치료의 핵심은 “어떻게 염증을 빨리 줄일까”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소염제를, 통증이 심하다면 항염증약제인 스테로이드약물을 관절내로 직접 넣어줍니다.

오십견을 진단받고 어느 분은 (1)아예 어깨를 쓰지 않거나, 반대로 (2)아파도 참고 운동해야 한다면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옳지 않습니다. 아예 어깨를 쓰지 않으면 어깨의 운동범위제한이 더 악화됩니다. 반대로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면 (오십견은 염증이 원인인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통증을 참을 수 있는 범위(조금 빠근한 정도) 내에서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십견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낫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만 참을 수 있으면 아무 치료 안해도 시간(짧게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 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수회

전 화: 031)219-1608  
팩 스: 031)219-2240  
E-메일: ajoufaculty@ajou.ac.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을곡관 263호

하지만 병이 나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통증은 더 이상 없지만 어깨의 운동범위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병을 앓기 전 정상범위보다 운동범위가 한참 부족합니다. 제가 오십견으로 내원해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조기에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를 시행해서 염증을 줄여주면 운동범위제한의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 이상 어깨가 아프고 불편하시

다면 빨리 저를 만나러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십견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병이 그렇듯이 오십견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빨리 낫습니다.

소식

## 교수회 소식

### 교수회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 개최

4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교수회 사무실에서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교수회 의장, 총무와 2018학년도 2학기 및 2019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이 참석하였으며, 아주대학교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소감, 업무에서 느끼는 궁금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회에서는 매 학기 아주대학교에 임용된 신입교원들을 모시고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대학교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교수회 제97,98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지난 4월 22일(월)과 5월 20일(월) 오후 12시 교직원 식당(오크룸)에서 교수회 제97, 98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월례 대의원회에서 보고 및 논의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전체 교수님들께 전자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99차 월례 대의원회는 6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수회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 노명우(편집책임),  
김종식, 양희석, 윤호섭, 최영화